

부족한 요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요나 4:1-4, 마태복음 12:39-40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과 그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양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인간이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 끝, 237, 5천 종족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강단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그리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본문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스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나타난 요나의 반응이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나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요나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다. 그 때 죄를 범하고 죄가 드러나고 내가 부족했을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바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숨기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하나님 앞에 거짓과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앗수르의 니스웨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셨던 것이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다. 성령을 상징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요나서에 담긴 깊은 복음적인 의미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

1. 먼저 첫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수도 니스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

하러 하여 읍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성령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도 인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이 막힌다. 그래서 기도가 다인 것이다.

(2) 두 번째의 요나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정확히 모르고 믿으면 그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요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무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발생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편집, 계획,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은 질문만 하면 된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요나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며 고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달은 것이다. 문제가 왔을 때 깨닫는 것만 해도 중요한 것이다. 들어온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3)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면서도 배에서 편하게 깊이 자고 있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 방신을 삼키는 우상숭배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배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린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보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더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요나도 그러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울무, 틀, 함정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겠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되어있다.

2. 두 번째로,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절대목표이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나서 1장 2절이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강대국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많은 작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야 한다. 니스웨 성에서도 왕이 먼저 회개하고 전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전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시킬 수 있었다.

(2) 하나님은 풍랑에 던져진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사건캡트'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가 많다.

(3)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졌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알려주셨다.

(4) 하나님의 전도는 요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다.

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겠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②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배에서 풍랑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제비에 뽑혔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바다에 던져졌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이뿐 아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기도를 하였다. 근본적인 회개기도였다. 2장 4절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2장 7절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9절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초급믿음에서 중급믿음, 고급믿음을 지나 초특급믿음으로 향하여 갔다. 결국 요나는 평생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다.

3. 세 번째로, 요나서의 표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표적이라는 단어의 설명이다. '표적'이란 히브리어로 '오트'(מט)이고, 헬라어는 '세메이온'(σημειον)이며 영어로는 '사인'(sign)으로 '표시', '징조', '증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증거, 사인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은 초과학적인 현상이지만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복음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다.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부활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의 효

과, 죄사함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2) 요나서에도 초과학적인 표적들이 나오고 있다.

① 첫 번째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건이다. 요나서에 등장한 큰 물고기가 고래나 백상아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뒤집어진 배가 공기주머니가 형성된 것처럼 지금은 멸종되고 없지만 큰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큰 물고기가 지중해에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두 번째 표적은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에도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한 사건이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나는 3장 4절에 보면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를 외쳤을 뿐이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던 것이다. 한 이방인이 지나가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왕부터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지 못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유추를 할 수 있다.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에 보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그 시점을 BC.763년으로 보는데, 니느웨 성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 다른 예상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뱃사공 중에 니느웨 출신의 사공뿐만 아니라 왕의 상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왕의 상인이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회개를 선포한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부활의 언약을 미리 보여주셨다.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참된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10분만 집중적으로 이미지트레이닝을 한다면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앗수르와 니느웨 같은 절대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란다. 그 명단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란다. 그것도 어려우면 생각만이라도 해 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도 요나처럼 부족할지라도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 서밋, 치유의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요나보다 훨씬 부족한 저희를 완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언약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평생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